



2007 농업인 교육 어떻게 달라지나

농림부는 지난 3월 9일 제1차 농업교육심의위원회를 열고 2007년도 농업인 교육방향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발표된 농업인 교육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모두 267개 과정을 개설해 4만9,100여명의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이 집중 실시된다. 올해 주요 교육내용(농업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지역특성화 교육 중 수준별·품목별 중복 교육과정을 축소한다.

또 올해 경영수준별 선택이 가능한 '교육과정 수준별 분류제'를 시범 실시하고, 2008년까지 창업→성장→전업농→기업농단계의 '필수교육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 내실화를 위해 농업교육 정보시스템을 확충하고, 교육모니터링 평가를 강화해 교육 정보 수집부터 평가까지 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로 했다.

〈자료: 농민신문, 3.12〉

환농연 정기총회, 6월 2~10일 유기농업의 날 지정

환경농업단체연합회(회장 이태근)가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선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2007 유기농업의 날 행사 추진 등 올해 주요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한다. 환농연은 지난달 말 농업기술진흥회관 2층 대강당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특히 정책사업으로 유기식품관련 TFT복원 및 활동재개와 유기식품법안 마련, 2007 대선 공약 마련을 위한 회원단체 의견수렴,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선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자료: 한국농어민신문,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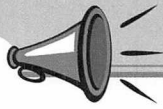
중국 매장에 우리농산물 올린다

농협이 이르면 올해 안에 중국 농협 매장에 우리농산물 전문 판매코너를 개설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3월 6일 중국 장쑤성 공소합작총사(우리나라 농협에 해당하는 조직)와 전문 판매점 개설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 장쑤성 난징에서 열린 이날 조인식에는 이연창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와 위엔징포어 공소합작총사 주임(회장) 등이 참석했다. 장쑤성 공소합작총사는 대형마트인 수귀마트 등 130여곳의 매장을 운영하는 유통전문 기업이다. 농협은 이번 조인식을 통해 이르면 올 3·4분기 안에 수귀마트 3~4곳에 농협식품 전문 판매코너를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농민신문, 3.12〉

온난화로 농업환경 급변 품종선택 재배법 전환을

지구온난화로 국내 농업 환경에도 빠른 변화가 일고 있어 농작물의 안전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한 농업기상, 재배법, 품종육성의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열대작물인 벼는 온도가 높아지면 조생종 재배지대는 중생종 재배지대로, 중생종 재배지대는 만생종 재배지대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온도가 상승하는데도 현재의 재배시기를 고수하면 쌀의 소출은 등숙기에 고온 때문에 20~30% 감소되지만 등숙에 알맞게 재배시기를 옮기면 약 18%의 증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리도 재배 한계지가 북상하면서 가을보리 재배한계선이 해안선을 따라 수원, 충주까지 북상했으며 겉보리는 철원에서 충주까지 재배 한계지가 확대되고 있다. 사과와 배 또한 꽃 만개 시기가 빨라지고 만개 소요일수가 짧아지며 납작한 사과 생산이 증가하면서 착색도 불량해져 품질 저하가 예상된다. 특히 기온상승에 따른 품질변화는 한반도의 사과재배 적지에도 변화를 가져와 현재 재배면적 2만7000ha가 온도가 3°C 상승하면 1만5000ha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농수축산신문, 3.14〉

농림부, 바이오디젤용 유채 시범 생산

농림부는 올해부터 2009년까지 친환경 디젤 원료의 국내 생산을 위해 바이오디젤 연료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재배 규모는 모두 1,500ha(500ha씩 3개 지역)로, 사업 참여농가에는 1ha당 170만원씩 모두 26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 수준은 보리와 유채 재배 시기가 같은 점을 감안, 현재 보리 가격의 70% 수준인 유채를 재배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선에서 결정됐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은 500ha 이상 단지화된 재배지를 확보하고, 유채생산추진협의회를 구성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야 한다.

〈자료: 농민신문, 3.16〉

농업인 CEO 양성교육

경북도농업기술원(원장 윤재탁)이 올해부터 농업인 CEO 양성을 위한 교육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도농업인회관에서 사과반 38명, 한우반 42명 등 80명의 농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CEO양성 학교 개강식을 열고 10개월간의 교육에 들어갔다.

〈자료: 한국농어민신문, 3.19〉

“농업·농촌 투융자 119조원보다 증액될 것”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지난 3월 19~21일 진행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농업 고위급 협상과 관련, 양측의 입장차가 커 완전한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 119조 투융자 예산에 대해서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조정·보완하면서 119조원보다 증액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처음으로 ‘119조원 +α’ 설을 밝혔다. 박장관은 ‘2007년 농림부 업무보고’ 기자 브리핑 도중 고위급 협상과 119조 투융자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쌀과 쇠고기

등 두개 품목은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되지도 않았다”며 “기본 틀에서부터 이견이 있었는데 입장차가 커 오늘 내일 이틀간 그런 문제점들이 100% 해결되리라고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농민신문, 3.21〉

‘누에씨’가 우즈베키스탄에 첫 수출된다.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류인섭)은 “농촌진흥청과 우즈베키스탄 나만간주의 양잠기술 이전 협약에 따라 농산물원종장잠종분장이 자체 생산한 ‘누에씨’ 19g 300상자를 (주)코리아 쉬핑트레블을 통해 상자당 3만원에 수출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친환경적으로 자체 생산한 누에씨를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양잠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농민신문, 3.23〉

정부, 중국·EU등과 FTA 본격 추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둘러싼 논란으로 나라 전체가 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정부가 농업대국인 중국·EU(유럽연합) 등과 FTA를 추진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 농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22~23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에 들어간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올해 3차례 개최될 공동연구의 세부 운용규칙과 보고서에 답을 사항을 확정하는 한편 양국의 FTA 추진 기본원칙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산·관·학 공동연구나 예비협의를 하는 경우 FTA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공동연구는 본협상에 가기 위한 사전단계로 볼 수 있다”면서 “우리는 포괄적인 FTA를 요구하면서 한편으론 농산물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농민신문, 3.21〉

지하수·연료 절감 수막재배법 개발

지하수 사용량과 연료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수막재배 시스템이 새로 개발됐다.

원예연구소(소장 목일진)가 새로 개발한 이 시스템은 병렬형 순환식 수막재배 시스템으로, 한번 사용한 물을 물탱크에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 지하수 사용량을 기존 수막재배 방법 때보다 60~70%까지 줄일 수 있다. 또 연료는 온풍 가온 방식보다 2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김학주 원예연구소 연구관은 “많은 지역이 지하수 고갈로 수막재배를 할 수 없는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하면 지하수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저온성 작물인 딸기·상추·감자 등을 충분히 재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농민신문, 3.26〉